

碩士學位論文

翻譯研究Ⅱ

— 『翻譯研究Ⅱ』 韓國語 翻譯 論文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中 科

孫 嫻 娜

2005年 7月

# 翻譯研究Ⅱ

- 『翻譯研究Ⅱ』韓國語 翻譯 論文-

指導教授 金 中 燮

孫 姍 娜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孫姍娜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洪 善

審査委員 金 中 燮

審査委員 宋 炫 宣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5年 7月

## 목 차

피동형 표현 .....	1
중국어 수사 .....	5
문언문과 백화문 .....	5
명사를 동사 대신 .....	17
“同時” .....	17
“是” .....	18
“直到……之時” .....	18
기타 .....	19
말 .....	21
변화 .....	23
군더더기 .....	25
기타 .....	26
중국어 단어 .....	27
쌍음절 단어 .....	27
어린이 용어 .....	29
자동사와 타동사 .....	30
단어 줄여 쓰기 .....	31
상황에 맞은 단어선택 .....	33
별자(別字), 발음이 같은 글자 .....	34
변질 된 단어 사용 .....	35
단어 연구 .....	38

영어 단어 .....	44
1. 동사 .....	44
2. 명사 .....	50
3. 형용사 .....	51
4. 대명사 .....	54
5. 개사 .....	54
6. 연결사 .....	56
7. 기타 .....	58
 참고문헌 .....	 59



## 피동형 표현

모든 중국어 문법책마다 피동형 표현법이 있듯이 중국 사람들이 결코 피동형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참고서로 高名凱의 《漢語語法論》이 있는데, 이 책의 제1편 제 6장 제10절을 보면 많은 예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 사용법만 소개하겠다.

- 예) 被人欺負了。(남에게 당했다.)  
給人欺負了。  
讓人欺負了。  
叫人欺負了。  
為利所迷。(명리에 눈이 멀었다.)  
被賊所敗。(악당에게 졌다.)  
他嚇得要死。(그는 놀라 죽는 줄 알았다.)  
挨了一頓打。(거세게 한 대 맞았다.)  
不為酒困。(술에 찌들지 않는다.) 《論語子罕》 1)

이 외 고문의 “見(견)”자 역시 피동문에 사용된다. 예) “盆成括見殺” 《孟子盡心下》 2).

이 예문 중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은 “盆成括見殺”, “他嚇得要死”, “挨了一頓打”를 제외한 기타 예문에는 모두 “行為者(행위자)”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被人打了”에서는 “人”이 “행위자”이며, “為利所迷”에서는 “利”가 “행위자”이다.

피동적 표현 사용에 관해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중국어는 영어만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어는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역주: 《論語·子罕》 第九,十六章을 참고.

2)역주: 《孟子·盡心下篇》 第二十九章을 참고.

그러나 일부 번역가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어를 중국어로 직역하여 번역문이 중국어 표현법에 맞지 않은 문장들을 마구잡이로 써대고 있다.

예)

- 1.他被許可來美。
- 2.最近被注意到一件事。
- 3.這地方被稱為天堂。
- 4.他被指定為負責人。
- 5.他被查出貪污染。
- 6.這條條文被修改為……。
- 7.這座大廈被稱為“偉觀大樓”。

이처럼 번역자들은 “-ed”를 모두 “被”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중국어 표현에 맞지 않다. 이 문제의 보완법은 두 가지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표현을 바꾸는 것이다.** 예문3을 “這地方有天堂之稱 (이 곳은 천당이라고 불린다)”라고 고쳐 쓰는 것이다. 이러면 굳이 “행위자”를 쓰지 않아도 피동형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아니면 “大家把這地方叫做天堂 (사람들은 이 곳을 천당이라고 부른다)”으로 표현을 바꿔줘도 피동형 표현이 된다. **그리고 차선책은 “행위자”를 찾아 보충하는 것이다.** 예문6을 우선 앞 뒤 문장을 읽어보고 이 조약이 분명 위원회가 책임지고 수정한다는 것을 확신 할 경우 “這條條文已經委員會修改…… (이 조약의 조항은 위원회가 이미 …로 수정했다)”라고 고쳐준다. 그런데 만약 이 조약을 누가 책임지고 수정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함부로 “행위자”를 보충해선 안 된다. 잘못하면 오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리 좋은 보완법은 아니다. 물론 이 말도 표현을 바꿔 “這條條文已經改為…… (이 조약의 조항을 이미 …로 수정됐다)”라고 고쳐 피동형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피동형 표현을 잘못 쓰는 이유가 모두 “被”를 잘못 사용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와 영어의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어에서 피

동형 표현을 했다고 중국어도 피동형 표현인 “被”를 쓸 필요가 없다. 예문5는 굳이 “被”를 쓸 필요 없이 “他貪污有據,已經查明”으로 쓰면 된다. 예문1 “他已經獲准赴美”에 “准”은 이미 미국 이민국에서 입국승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被”를 쓸 필요 없다. 예문2는 “有一件事最近已經有人注意到了”로 번역해도 “人”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역자는 “人”에 대해 더 이상 부가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만약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건이 화학계의 새로운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最近化學家經注意到”로 번역해주면 된다.

예문4는 반드시 “행위자”를 찾아 “他做負責人 (그가 책임자가 됐다)”이라고 수정해야만 한다. 만약 “행위자”를 알 수 없다면 “他成了負責人 (그는 책임자가 되었다)”으로 번역해야 한다. 예문7문장 중에 “被稱”을 “定名 (~라고 이름을 정하다)”으로 고칠 수도 있다. 이 또한 피동형 표현 중 하나이다. 이렇듯 문장의 보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일부 번역자들은 이를 무조건 “被”로만 번역해서 문제인 것이다.

영어의 피동형 표현을 유심히 주의해 보면 가끔 특별하게 쓰이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t is suggested that……’라는 문장은 굳이 누가 ‘suggest’ 했다고 설명을 안해도 ‘suggested’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참 신기한 표현법이다. 또한 예로 ‘it should be understood that……’라는 말은 사람을 훈계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간접적인 의사전달법을 사용하였기에 중국어로는 “你該明白 (너도 알다시피)”란 뜻이 된다. 이런 경우 역자는 따로 번역의 묘책을 강구 해낼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중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길게 일일이 설명을 안해도 의사소통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옛 죄수들을 사형집행 전에 “驗明正身 (본인확인)”을 했는데, 죄수의 신변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驗明人”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굳이 “驗明人”이 “驗明”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어 자동사는 피동적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 굳이 “被”를 안 써도 된다. 예를 들어 《紅樓夢》<sup>3)</sup> 제 28회 중 “這汗巾子,是茜香國女國王所貢之物,夏天繫著……” 이 중의 “繫”는 영어로 번역 할 때는 피동형 표현으로 번역해줘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3)역주: 《紅樓夢》,曹雪芹작.

“被”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被”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도 “被”로 번역하는 것이 버릇됐다.

예)

他(被)嚇的昏過去了。(그는 놀라서 기절했다.)

鍾(被)敲三下。(종을 세 번 울렸다.)

賊的贓(被)接不得。(장물을 받으면 안 된다.)

房間已經(被)佈置好。(방을 이미 다 꾸며 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 설명할 것은 “被”대신 “給”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給”는 “被”가 주는 어감보다는 약하다. 예를 들어 “他貪污給查出來了(그의 비리가 밝혀졌다)”의 어감은 “被查出”보다 약하다. 그리고 더 정확한 표현은 “給人查出”이다. “這筆錢給搶走了(이 돈을 빼앗겼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영어에도 중국어의 자동사와 같은 동사를 볼 수 있다. look을 예로 들자면 he looks well 중 look은 “被看”이 아닌 “被人看出是(누구에게 어떻게 보인다)”라는 뜻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現”이나 “顯出”란 뜻이다. 그리고 benefit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I benefit by your example라는 말은 I am benefited by……라는 뜻이다.



## 중국어 수사

옛날 사람들이 작문을 배울 땐 항상 저명한 작가들의 글을 찾아 그 글을 끊임없이 익히고 계속해서 글을 지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었다. 옛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오래 지속하다보니 작문실력을 쌓아 갈 수 있었고 후에는 혼자서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요즘 사람들은 고문을 읽지도 않고, 배움의 대상이 될 백화문 작품도 별로 없어 작문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작문을 수정해 주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는 터라 글을 배우기가 더 어렵다. 아마도 선생님들 자신이 백화문을 잘 쓸줄 몰라 가르침을 게을리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질 낮은 번역문들이 각종 책과 신문(뉴스 정보 위주) 그리고 잡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인쇄 출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그 영향이 대중 전체에게 미치고 있다.

영중 번역작업은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해야만 하는 이상 중국어를 안 따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어 수사학」에 관한 책이 아니므로 수사학의 세부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다. 여기선 보편적으로 자주 틀리는 수사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본장의 내용은 뒤에서 볼 「나쁜 버릇」장과 매우 흡사하다. 일부 내용은 두 장으로 나눠 다루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밖에 「중국의 중국어」장도 이 두 장과 연관 있다.

## 문언문과 백화문

문언문과 백화문의 조합과 조합 정도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두 번역자가 한 개의 단어를 두고 한 사람은 “너무 문언문적인 단어

에서 백화문에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또 다른 번역자는 “이 글은 지극히 백화문적인 글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느 작가는 “이 문장은 매우 훌륭한 백화문이다”라고 말하는 반면 또 어느 작가는 “너무 통속적인 문장이다”라고 서로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단은 독자들과 시대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어 수사의 골칫거리는 문언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백화문도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있다. 결국 문장에 고문과 백화문을 이것저것 막 섞어 쓰다 보니 문언문도, 백화문도 아닌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번역문이 백화문도 문언문도 아니고, 중국어도 영어도, 구어도 서술어도 아닌 중구난방식의 문장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골치 아픈 문제는 아마도 20~30년이 지나야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5.4운동 시절 당시 일반 문인들이 모방을 중요시하여 써낸 글은 모두 틀에 박혀있어 타도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중국 사람들은 사용할 줄 아는 어휘나 글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질 낮은 번역물들도 득실거리고 있어 그 악영향이 워낙 큰 터라 일상생활의 대화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요즘 중국 사람들은 선인들의 시(詩), 고문(古文), 사(詞)를 읽고 익혀두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의 경우 “시경(詩經)”을 공부하여 여러 가지의 풀, 나무, 새, 짐승, 곤충, 물고기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약 30년 전 施鰲存이 쓴 글 중 “문선집(文選集)에서 인용할 말들을 찾아 봤다”는 솔직한 한마디로 크게 비난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학가는 문선집의 단락 전체를 혹은 낱은 말들만 표절하지만 읽는다면 문선집을 읽는 것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영중 번역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영어 형용사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 번역자는 뜻이 같은 중국어 단어를 적어도 3,4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번역문의 앞 뒤 문장이 반복되었는지, 문장을 읽었을 때 앞 뒤 문장에 음조 조화를 잘 맞췄는지, 단어의 어감은 적당한지, 그리고 독자들이 작가의 의미를 잘못 혹은 다른 뜻으로 오해는 하지 않을지, 작가가 암시하고자 하는 미묘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백화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백화문은 마치 갓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 처럼 아직 미숙한 단계여서 어휘나 문법 모든 면에서 아직 문언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비록 몇 천년 동안 사용한 문언문을 오늘 날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문언문의 고유의 용어, 문법, 운율들은 세계 어느 언어보다도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胡適가 일으킨 신문학운동은 매우 올바른 일이었으나 만약 이를 핑계로 문언문을 읽지도 않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문학 없이는 신문학이 탄생할 수 없다. 胡適 본인을 포함해서 周씨형제<sup>4)</sup>, 朱自淸淸, 俞平伯 등은 모두 다 고문을 익혔던 사람들이다.

문언문 없이는 제대로 된 백화문을 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문언문은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가?
2. 백화문과 문언문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
3. 어떤 상황에 문언문을 사용해야 하며 또 어떤 상황에 꼭 백화문으로 써야 하는가?

첫째, 몇 종류의 글에는 문언문을 많이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 공문, 사설, 시론, 일기, 서신 등등. 그리고 일부 글에는 문언문을 많이 사용해서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설, 수필, 작문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기준은 각 개인의 생각과 표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니다.

문언문과 백화문의 비율을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문장에 맞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의 어투가 문장식이었다 회화식이었다 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는 말투도 고전 말투였다 현대식 말투였다 해서는 안 된다.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문언문의 虛字(허자) 사용법이다. 문언문에서 쓰이는 應, 即, 乃를 썼으면, 백화체에서 쓰이는 該, 就, 是를 써서는 안 된다. 어찌됐던 결론은 전체 문장의 문언문과 백화문의 조합이 적당해야 한

<sup>4)</sup>역주: 周樹人과 周作人은 친형제 사이로, 중국에서는 周氏兄弟라고도 부른다.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사 정한다 해도 준수하기도 매우 힘든 일이다. 이라고 보면 문장을 전부 문언문으로 혹은 전부 백화문으로 쓰는 것이 더 쉬울 듯싶다.

둘째, 일반 백화문에서의 문언문과 백화문의 조화는 대략 아래와 같다. 보통 도서명, 편명, 성어, 명사, 형용사는 문언문으로 쓴다. 예를 들어 “苦學卅載 (30년 동안의 힘든 학습)”, “輻射 (방사)”, “楚楚 (산뜻하다)” 등등. 그리고 虛字(허자)는 백화문으로 쓴다. 예를 들어 “即發出了號令”, “應快些來”, “乃三個人的事情” 등은 “就發出了號令” (명령을 내렸다), “應該快些來” (빨리 와야 한다), “這是三個人的事情” (이 일은 세 사람의 일이다.)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셋째, 풍경묘사, 감정표현, 사물에 대한 기술을 쓸 때는 문언문을 인용해도 된다. 그러나 대화내용만은 반드시 대화체로 써야 한다. 생각해 보라, 만약 따옴표로 표시한 사람의 말이 마치 옛날 사람이 쓴 문장 같다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소설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대화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시대 일부 작가들은 옛날 고문으로 대화문을 쓸 수밖에 없던 고인 曹雪芹, 文康 등과 같은 선인들 보다도 대화문을 더 쓸 줄 모른다. 물론 이 두 작가들은 서양 소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써낸 대화문을 보고 있으면 책 속 사람들의 신분과 성격의 차이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그 대화문도 거의 대화체로 쓰여 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옛날 사람들이 마냥 존경스러워진다.

어떻게 해서 문언문과 백화문을 절묘하게 조합시키는 지는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고전 작품들과 많은 백화문 작품들을 많이 보고 읽으면서 열심히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 외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번역을 하다 보면 어느 문장은 문언문으로, 또 어느 문장은 백화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언문과 백화문이 뒤엉킨 번역문들을 낳게 한 것이다. 이는 역자가 자신의 작업 편리상 쉬운 대로만 번역해서 생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앞 뒤 문장의 일관성을 무시하게 됐다. 그러나 번역문의 질을 높이고 싶은 번역자라면 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글들은 피해야만 한다.

“求助於…… (…에게 도움을 청하다)”라는 문장은 문언문 구조이다. 그래서 이 말은 역자의 편리를 위해 백화문에서 써서는 안 된다. “從……到 (…에서…까지)”는 이 백화문식 표현이고 “自……至”는 문언문식 표현이다. 둘을 혼동해선 안 되므로 문장 전체가 백화문으로 쓰여 있다면 “自……至”라는 문언문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從……至……”라고 쓰는 것은 문언문과 백화문을 섞은 경우로 이는 틀린 표현이다.

“談及”도 위와 마찬가지로 문언문에는 “述及”라는 표현이 있으며 백화문에는 “談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談及”라는 표현은 쓰면 백화문도 문언 문도 아닌 표현이 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

18~19세기 영국의 Charles Lamb(1775-1834)은 고어와 고문을 자주 인용하여 고문을 모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문을 완벽히 꿰고 있었고 고문과 백화문도 적절하게 조합을 이를 줄 알았던 사람이다. 당시 그가 쓴 문언문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예외인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일반 평론가들도 이런 그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찬사를 보냈다. 다만 평론가들은 대중들이 이런 글을 배우지 않길 바랐었다. 중국 5·4운동 시절에도 문언문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魯迅, 周作人也 영국의 Charles Lamb처럼 “예외”라는 대우를 받았었다. 이들 역시도 고문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으며 문언문과 백화문의 배치 및 조합도 최고였고 글 솜씨 또한 매우 훌륭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대중들의 배움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 밖에 순수 백화문을 제창했던 胡適도 백화문만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도 문언문과 백화문 조합의 고수였다. 필자는 번역의 백화문과 문언문 조합에 관해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한 설명을 돕기 위해 참고할 예문을 뽑아 봤다.

〈忽然想到〉 5) 魯迅작:

……康聖人<sup>6)</sup>主張跪拜,以為“否則要此膝何用”。走時腿的動作,固然不易於看得分明,但

5)역주: 魯迅의 〈忽然想到〉 1925년 1월 작품, 《華蓋集》 참고.

6)역주: 본문의 康聖人은 康有為를 말 한다.

忘記了坐在椅上時候的膝的曲直,則不可謂非聖人之疏於格物也。身中間脖頸最細,古人則於此斫之,臀肉最肥,古人則於此打之,其格物都比康聖人精到,後人之愛不忍釋,實非無因。所以僻縣尚打小板子,去年北京戒嚴時亦嘗恢復殺頭,雖延國粹於一脈乎,而亦不可謂非天下奇事之三也!

...康有爲는 무릎 꿇고 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려면 무릎은 뒤서 어디에 쓸 것이냐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사람의 걷는 다리모습을 보고 무릎을 구부렸는지 아닌지는 보기 힘들지만,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에는 분명 무릎을 구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본 것은 康有爲가 사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옛날 사람들은 신체 중에서 제일 가는 부위를 골라 참수형을 행했고, 살이 제일 많은 부위인 엉덩이에 곤장을 때렸다. 이러한 관찰은 康有爲가 관찰 한 것보다 훨씬 정교해서 후손들이 이러한 집행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것 같다. 그래서 외딴 마을에서는 아직도 곤장을 때린다. 작년 북경 계엄 때도 참수형을 다시 합법화시켰는데, 아무리 전통을 계승하려는 것이라지만 이 또한 세상이 중세 번째 불가사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단락은 한마디로 화끈하고 시원한 최고의 풍자문이다. 백화문과 문언문이 매우 매끄러운 조화를 이뤘으며 문장을 읽었을 때도 너무 문언문적이지도 않고 백화문적이지도 않는 딱 좋은 궁합을 보였다. 이러한 걸작은 문장의 달인이 아니곤 절대 써낼 수가 없다. (필자는 이 중 “則於此斫之”를 “於此則斫之”로 고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上下身〉 7) 周作人작:

……人的肉體明明是一個(雖然拿一把刀也可以把他切開來),背後從頸到尾間一條脊椎,前面從胸口到丹田一張肚皮,中間並無可以卸拆之處,而吾鄉的賢人必強分割之為上下

7)역주: 周作人の 〈上下身份〉 1925년 2월 작품, 《雨天的書》 참고.

身,--大約是以肚臍為界。上下本是方向,沒有什不對,但他們在這裡又應用了大義名分大的道理,於是上下變而為尊卑、邪正、淨不淨之分子: 上身是體面紳士,下身是“該辦的”下流社會。這種說法既合於聖道,那麼當然是不會錯的了,只是實行起來卻有點為難。不必說要想攬腰的“關老爺一大刀”分個上下,就未免斷送老命,固然段乎不可,即使在該辦的範圍內稍加割削,最端正的到學家也絕不答應的。平常沐浴時候·要備兩條毛巾,兩只盆,兩桶水,分視兩個階級,稍一疏忽不是連上便是犯下,紊了尊卑秩序,深於德化有妨,又或坐在高凳上打盹,跌了個倒栽蔥,更是本末倒置,大非佳兆了。由我們愚人看來,這實在是無事自擾,一個身子站起睡倒或是番個跟斗,總是一個身子,並不如豬肉可以有里脊五花肉等之分,定出貴賤不同的價值來。吾鄉賢人之所為,雖日合於聖道,甚異古代蠻風之遺留歟?

사람의 몸은 분명 하나이다 (비록 한 칼에도 동강 날 수 있지만 말이다). 몸의 뒷면은 머리와 목에서부터 꼬리뼈가 있는 데까지 하나의 척추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면은 가슴에서부터 단전까지 하나의 피부껍질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곳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필자 고향의 현인들은 몸을 굳이 윗몸과 아랫몸으로 나눈다. 배꼽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

원래 상하는 방향을 뜻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대의명분을 인용해 상과 하를 존귀와 비천, 선과 악, 순결함과 더러움 등으로 나눴다. 다시 말해 윗몸이 양반이라면, 아랫몸은 “다스려야”하는 하류층 사람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구분이 성도(聖道)에 부합된다면 물론 틀린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이 어려울 뿐이다. 허리를 기준으로 칼로 구분시켜 버리면 당장 생명이 위험하므로 절대 안 될 것이고, “다스려야 할”부분을 좀 자르는 것도 아무리 고리타분한 도학자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목욕 할 때도 수건 두 장, 물 두 통을 준비하여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눠 씻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래 것들이 위 사람을 능멸하는 격이 되어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이 뒤섞여 도덕수양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흑 높은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졌다면 시작과 끝이 뒤바뀌는 경우여서 불길한 징조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우리 시민들 눈에는 모두 사서 고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몸을 일으켜 앉든, 누워서 자든, 물구나무를 서든 모두 하나의 육체의 움직임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마치 돼지고기 삼겹살과 등심살을 나누듯 귀천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필자 고향에 있는 지성인들이 말하는 이러한

구분법은 비록 성도(聖道)에 부합한다 해도 이것은 고대 야만인의 잔재가 아닐까?

이 단락도 유머적으로 쓰낸 풍자문이다. 위 魯迅의 문장과 비교하면 글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나 두 문장 모두 문언문과 백화문의 절묘한 조합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문언문과 백화문을 잘만 조합시키면 훌륭한 글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런 작문 방법은 배우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선 번역문을 통해 문언문과 백화문 조합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僧侶呼那問他的兒子何以他不跟僧侶希司達讀書……”兒子答：“我到他的地方去時,他說粗俗的事實,---什麼消化器官的功能,和怎樣使自己善於運用那些功能。”他的父親回答：“希司達將上帝的造化加以研究,而你則稱之為粗俗！你更加應該去跟他學。”

후나스님이 아들에게 어째서 히스다스님과 공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아들이 답하길: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일반 통속적인 말들만 했어요--소화기관 기능이 어쨌다는 등, 어떻게 해야 그 기능을 잘 사용 할 수 있느냐는 등등” 그의 아버지가 대답하길: “히스다스님은 육황상제의 창조물을 연구하는 것인데 어찌 너는 그것을 통속적인 것이라 하는 게야! 그래서 너는 더욱더 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야!”

이 번역문은 대화문이어서 구어식 표현법을 써야 한다. 아니면 《聊齋誌異》의 대화문처럼 전부 문언문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다. 그러나 이 역자는 문언문도 백화문도 아닌 이상한 번역을 해 놓았다. 周씨 형제가 쓴 대화문을 한번 보자.

〈狗、鼠、貓〉 8) 魯迅작:

……“你知道嗎？貓是老虎的先生，”她說。“小孩子怎麼會知道呢，貓是老虎的師父。老

---

8)역주: 魯迅의 〈狗、鼠、貓〉 1926년 2월 작품, 《朝花夕拾》 참고.

虎本來是什麼都不會的,就投到貓的門下來。貓就教給他捕的方法,捉的方法,吃的的方法,像自捉老鼠的一樣……

“아가 그거 아니? 고양이도 호랑이의 선생이라는 걸?” 할머니가 말했다. “애가 알리가 없지. 고양이는 호랑이의 사부였단다. 호랑이는 원래 할 줄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대, 그래서 고양이의 부하가 됐었어. 고양이는 호랑이에게 사냥하는 법과 먹는 법을 가르쳐줘서,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은 것처럼……

니체의 말을 번역한 周作人の 문장은 전혀 문언문적인 느낌이 없다.

……你們不要愛祖先的國,應該愛你們子孫的國……你們應該將你們的子孫,來補救你們自己為祖先的子孫的不幸。你們應該這樣救濟一切的過去。9)

……너희는 조상의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 너희 자손들의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손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조상의 자손인 불행을 만회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모든 과거를 만회해야 한다.



(이 번역문도 고칠 부분이 꽤 있긴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예문은 周作人 같이 고문을 즐겨 쓰는 사람도 대화문을 번역할 때는 전부 백화문으로 썼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백화문으로 쓴 대화문은 더욱 생동감이 흘러넘친다.

예로 <詛咒> 10) 속 두 대화를 보자:

甲問：“你老不是也上上權仙去看出紅差嗎？”

갑이 질문하길, “너도 자주 上權(상권)에 가서 참수형을 구경하잖아.”

乙答：“是呀,聽說還有兩個大娘們啦,看她們光著膀子挨刀真有意思呀。”

9)역주: 周作人の <祖先崇拜> 1919년 3월 작품, 《談虎集》 참고.

10)역주: 周作人の <詛咒> 1927년 9월 작품, 《談虎集》 참고.

을이 답하길, “그랬지, 듣자니 이번에는 여자 죄수도 두 명이나 있다네. 윗몸을 내놓고 칼 맞는 모습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聊齋誌異》의 대화 내용을 보도록 하자. 이 내용도 생동감이 흘러넘치고 조금의 부자연스러움도 없다. 〈勞山道士〉 내용 중:

道士問眾：“飲足乎？”曰：“足矣。”……辭曰：“弟子數百里授業先失，縱不能得長生術，或小有傳習，亦可慰求教之心。金闕兩三月，不過早樵而暮歸，弟子在家，不啻此苦。”道士笑曰：“我固謂不能作苦，今果然，明早當遣汝行。”……

도사가 그들에게 묻는다. “다들 배불리 마셨느냐?” 그들이 대답한다. “예.” 하산하겠다는 인사를 드리며 말하길 “제자가 도사님을 뵈러 몇 백리를 걸어 왔습니다. 비록 저에게 장생불로술을 전수 해주시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작은 도술 하나쯤은 가르쳐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오늘까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매일 새벽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땀감만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집에서도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도사가 웃으면서 말한다. “내가 처음부터 너는 이런 고생을 못 이겨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보니 정말 못 이겨내는구나. 잘됐다, 내일 아침 일찍 하산하여라.”

독자들은 이런 문언문의 대화문을 읽을 때면 독자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독자들이 문언문과 백화문이 섞인 문장을 읽을 경우엔 번역을 하지 않는다.

《三國演義》의 대화문도 매우 자연스럽다. 이유는 소설 속의 대화내용 전체가 문언문으로 쓰여 있어 독자들이 자동으로 현대 구어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읽기 때문이다.

백화문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장에 “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문에서 볼 수 있는 “的”가 무서울 정도로 많다. 이점은 앞에 “중국어어법”장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므로 본 장에선 더 거론하지 않겠다.

“拿鐵路的發展來衡量一國開發的情形 (철도 개발로 한 나라의 개발상황을 평가한

다)”, 이 한마디에 “的”가 두 번 쓰였다. 이는 두 개 다 “的”를 쓰거나, 둘 다 생략해야 한다. 여기에 “的”을 한 번만 쓰면 안 된다.

대명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문언 문에서 사용되는 “其”는 백화문의 “它的”, “它們的”, “他的”, “他們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솔직히 우리가 쓰고 있는 백화문은 야만적인 글인 것 같고 문언문이야 말로 진짜 “文明(문명)”이 담긴 글인 것 같다. 안 그런가?

“系”자는 문언문의 글자이므로 백화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언문의 “虛字(허자)”는 원래 백화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 예) 《戰爭與和平》(전쟁과 평화)을 “戰爭和和平”이라고 쓰면 안 된다. “冒失得罪人(경우 없이 남에게 패를 끼치다)”이라는 말도 문언문적인 표현으로 “冒失得開罪於人”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弄至”라는 말 중 “至”는 “到”로 고쳐야 한다. “弄到(~하게 되게끔)”가 진짜 백화문이지 “弄至”라는 말은 백화문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俗語(속어)가 문학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필자 생각은 다르다. 老舍의 북경사투리, 魯迅, 周作人 등 작가들이 紹興토종 민속가요를 인용하여 쓴 매우 감동적인 글을 필자가 직접 봤기 때문이다. 이렇듯 번역자가 대화문을 번역 할 때는 필히 소리를 내어 읽어보고 진짜 대화처럼 번역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아직 대화문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이유는 1. 쓰기를 두려워하고 2. 말소리의 글자 표현이 불가능 하는 경우 3. 구어 특유의 문법을 모르는 데 있다. 디킨스<sup>11)</sup>가 쓴 대화문을 봐도 영어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가 쓴 대화문의 글들은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으면 실제 대화를 듣고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周作人の 〈故郷の野菜〉 속에 수록된 紹興마을 아이들이 부른 “黃花麥果”라는 노래를 예로 살펴보자.

### 黃花麥果韌結結,

---

11)역주: Dickens, Charles Jhon Huffam (1812~1870), 영국 소설가.

關得大門自要吃：

半塊拿勿出，一塊自要吃。 12)

졸깃 졸깃한 숙떡

대문 달고 혼자 먹으려네:

반개 먹은 것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 혼자서 하나 다 먹네.

정말 감칠 나는 노래다.

그리고 〈喝茶〉에 수록된 紹興거리를 돌며 “周德和”의 “茶乾”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의 말을 예로 보자.

辣醬辣,

麻油炸,

紅醬塗,辣醬搨

周德和格五香油炸豆腐乾。 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추장의 매콤함

기름에 튀겨서

빨간장을 바르고, 고추장을 얻어

주덕화(周德和)는 오향을 넣은 기름으로 건두부를 튀기네.

이도 정말 재미있는 말이다. 비록 문장을 읽는 필자도 紹興사람이 아니지만 문장을 읽다 보면 마치 이 말이 紹興말로 들리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번역자는 속담이나 동요를 번역할 때 작문식 표현이 아닌 구어식 표현으로 번역해 주는 것이 좋다.

12)역주: 周作人의 〈故郷의野菜〉 1924년 2월, 《雨天的書》 참고.

13)역주: 周作人의 〈喝茶〉 1924년 12월, 《雨天的書》 참고.

## 명사를 동사 대신

명사를 동사 대신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영어에서는 이런 사용법이 가능하나 중국어에서는 안 된다. 영어로 He does his own laundry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중국어로 번역해 “他做自己的洗濯工作”(그는 자신에 세탁 작업을 하고 있다.)이라고 번역해선 안 된다. 중국어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왜 이 말을 “他洗自己的衣裳(그는 자신의 옷을 씻고 있다)”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는 뒤 「번역의 문제점」 장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 “同時”

“在那同時”와 “在……的同時(이와 동시에)”에는 새로운 중국어 표현이다. 이미 많은 저명한 번역가들과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이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의 “同時”가 이미 “在那同時”와 “在……的同時”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 새로운 표현은 약간 군더더기 같은 느낌이 든다. 예문으로 비교해보자.

예)

他預備了酒餚,同時生了一爐火。(그는 술상을 차렸으며 동시에 불도 지폈다.)

他預備了酒餚,在那同時,生了一爐火。(그는 술상을 차렸으며 이와 동시에 불도 지폈다.)

他在預備酒餚的同時,生了一爐火。(그는 술상을 차리는 동시에 불도 지폈다.)

위 3문장의 의미는 다 같으나 사용한 글자들은 차이가 크다. 독자들이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라.

## “是”

“是(~는 ~이다)”를 사용한 모든 문장은 문장 앞뒤 명사의 성질이 같아 (equation)야 한다. 예를 들어 “他是好人(그는 좋은 사람이다)”의 “他”와 “人”은 성질이 같다 (equation). 그러나 “這種方法是蘇打片”은 앞 뒤 명사의 성질이 다르다. “方法 (방법)”와 “蘇打片 (소다약)”은 같지 않다. “蘇打片”은 약이지 “方法”가 아니다. 이를 “醫治這個病的方法是叫病人服用蘇打片 (이 병의 치료법은 환자에게 소다약을 복용하라는 것이다)” 혹은 “治這個病的藥是蘇打片 (이 병의 치료제는 소다약이다)”이라고 고쳐 써야만 문장의 앞 뒤 명사가 같아진다. 어떤 경우는 한 문장에 두 명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오역을 낳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장에 “是”를 쓸 때는 반드시 “是”를 저울의 축으로 생각하고 이 축에 양쪽 명사가 같은지를 잘 살펴 본 다음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我們決定進攻,以待敵方同意要談和之時”라는 문장은 의사전달이 다 끝나지 않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을 “我們決定進攻,等到敵方同意談和那時再說 (우리는 적들이 합의를 원할 때까지 공격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보충시켜야 한다.

독자들은 바로 이처럼 말이 다 안 끝난 문장으로 만들어진 번역물들을 읽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你忍耐,直到他悔悟”로 말을 끝내지 않는다. 분명 뒤에 문장이 더 있을 것이다.

## 기타

“有區別”란 말은 말 그대로 구분이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을 “有所區別”라고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所”가 있다고 해서 뜻이 차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이 말 중에 경우 “所”가 있으면 뜻이 달라진다. “有區別”의 “區別”은 명사이다. 이는 두 가지의 사물 혹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有所區別”의 “區別”는 동사이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물이나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내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there is……는 “有”로 번역하고, There is……는 “的確有”로 번역하면 된다. 영어는 “기울임체”를 써서 그 글자의 중요함을 표시한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런 표기 습관이 없다. 중요함을 나타내고 싶을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바꿔 줘야 한다.

문언문적인 표현을 주고 싶어 “每人養有一條狗”로 쓴 문장은 문언문이 아니다. 문언문에 “有”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이 말을 “養了(기르다)” 혹은 “人人都養狗(모두 개를 기르다)”라고 한다. “擁有核子武器(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필자 생각은 방송상의 사용은 반대하지 않으나 소설, 산문, 수필 등에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要懂得這次競爭的激烈和意義(이번 경쟁에 치열함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이 말을 “要懂得這次競爭激烈到什麼程度,有什麼意義(이번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하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번역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번역 할 땐 “和(~와)”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이 “素食主義者(채식주의자)”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나 정확히 중국에서는 이를 “吃長素的”라고 한다. 물론 “素食主義者(채식주의자)”와 “吃長素的”는 의미 차이가 있다. “吃長素”하는 사람은 불교신자 즉 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素食主義者(채식주의자)”는 꼭 종교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영어 뉴스기사에 ‘did enormous damage to enemies’를 번역할 때는 “對敵人造成重大傷害 (적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라고 직역하지 말고 “重創敵人 (적들을 강타했다)”이라고 번역하자.

He belongs to his own people이라는 문장을 “他屬於他自己的人民 (그는 그 국민들에게 속한다)”이라고 직역하면 중국어가 어색해진다. 번역에 있어 바로 이런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은 “他忠於同胞 (그는 동포들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他和自己的民族是一體 (그는 그의 민족과 하나이다)”라는 뜻이다.

(it) lasted (three years)를 “延續 (연속)”이나 “持續 (지속)”으로 번역하면 중국어 습관에 맞지 않는 말이 되므로 좋은 번역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經過 (~을 거쳐)”라고 번역해도 잘못된 번역이다. 이는 오직 “歷 (지내다)”라는 문언문 글자로 번역해 주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이는 “歷時三年 (3년 지속됐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 밖에 “維持 (유지)”라는 표현도 사용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상황에 맞게 써줘야 한다. 또한 이 말을 백화문으로 번역한다면 “這件事拖了三年 (이 사건은 3년을 끌었다)” 혹은 “前後三年 (전후 3년)” 아니면 “總有三年功夫 (3년을 공들였다)”라고 번역 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요즘 번역자들은 “這件事延續了三年”로 번역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last를 번역하는 과정만 봐도 번역시 글자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這個人脾氣越來越大 (그의 성격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말은 들어 봤으나 “這個人生意越來越大”라는 말은 못 들어봤다. “生意”는 오직 “越作越大 (점점 더 잘되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다.

I asked him to explain을 “我要求他加以解釋 (난 그에게 설명을 요구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要他解釋 (그에게 설명하라 했다)”라고 고쳐주는 것이 말이 더 깔끔하고 자연스럽다.

volunteer social works를 “志願的社會工作者 (자원 사회 봉사자)”라고 번역한 것은 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니다. 이유는 “志願的 (자발적)”와 “社會 (사회)”가 한 문장

안에 너무 가까이 있어 잘못하면 “志願”이 “社會”를 수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志願參加社會工作的人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번역한다면 이런 오해를 없앨 수 있다.

중국어나 영어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 이 점은 두 언어가 같다. 우선 이 곳에서 역자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자. 이에 더 자세한 내용은 “중국어 단어”장에서 살펴보겠다. 가끔 역자가 오역을 하는 것은 출발어 단어들은 다 알고 있으나 문장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 모국어 작문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어에는 예의를 갖추었을 때 사용하는 글이 있다. 예를 들어 “用飯(밥을 먹다)”이라는 말이 예의를 갖춘 말이어서 화자 자신이 “我用了飯”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요즘에는 “你府上住哪裡? (댁은 어디십니까)”라는 질문에 “我府上住…… (저의 댁은……)”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이도 잘못 말한 것이다.

영어로 무언가에 대한 변화 상태를 설명할 땐 그 변화의 과정과 변화 정도를 같이 설명한다. 예) “河身突然變狹到寬不足一里 (강의 폭이 1km가 안되게 갑자기 좁아졌다)”라는 번역도 틀린 것은 아니나 좀 더 매끄러운 중국어로 만들기 위해선 위 번역문에 “到” 자를 “,” 로 바꿔주면 된다.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in 1939를 “在1939年”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在”를 안 써줘도 된다. 그리고 in July도 마찬가지로 “七月裡”로만 번역해주면 된다.

## 말

구어식 문장을 번역하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영어식이고 또 하나는 중국어식이다.

예)

(英式) “對了,” 約翰說, “我不想去。”

(영어식) “아참!” 존이 말한다. “난 안 갈래.”

(中式) 約翰說：“對了,我不想去。”

(중국어식) 존이 말한다. “아 참! 난 안 갈래.”

원래 대화 문장의 번역은 영어식을 따르든 중국식을 따르든 다 된다. 영어식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 문제될 것이 없고 중국식은 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문을 번역할 때는 문제가 좀 생긴다. 예를 들면

約翰說：你怎麼昨天沒來？

(존이 말한다. “너 어제 왜 안 왔어?”)

安妮答說：我昨天有事。

(앤이 대답한다. “어제 일이 좀 있어서.”)

約翰說：我等了很久,失望得很。

(존이 말한다. “난 오래 기다렸는데. 정말 실망했었어.”)

安妮說：對不起,我有事走不開。

(앤이 대답한다. “미안해 일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

約翰說：那麼,為什麼不先打個電話告訴我？

(존이 말한다. “그럼 먼저 전화라도 줘야지?”)

安尼說：我那附近沒有電話,我又走不開。

(앤이 대답한다. “부근에 전화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約翰說：……

(존이 말하길 “……”)

이런 기술방식은 발화자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독자들이 이런 문장을 읽고 있으면 금방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어식 번역은 이런 반복 문제가 없어 짜증나는 일이 없다.

예)

“你怎麼昨天沒來?”約翰說。

(너 어제 왜 안 왔어? 존은 말한다.)

“我昨天有事,”安妮答說。

(어제 일이 있었어. 앤이 대답한다)

“我等了很久,”約翰說“……”。

(널 오래 기다렸단 말이야. 존이 말한다)

필자도 대화문은 영어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비교적 낫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가 무조건 서양문화를 반대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장점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



## 변화

일부 번역자들은 번역시 단어 사용의 중복을 피해보려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他在1895年生在匈牙利 (그는 1895년 헝가리에서 태어났다)”라는 말 중 “在 (…에서)”를 두 번 쓰지 않기 위해 “他於1895年生在……”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같은 뜻의 글자를 원래와 똑같이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문언문과 백화

문의 조합문제도 해결하지 못 했다. 이 말은 처음 그대로 “1895年他在匈牙利出世”라고만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은 번거롭게 쓸 필요 없이 “1895年他在匈牙利出生 (1895년 그는 헝가리에서 태어났다)”이라고 쓰면 된다. 혹은 “他是匈牙利人, 1895年生 (그는 헝가리 사람, 1895년에 태어났다)” 혹은 “.....生於1895年 (1895년 생)” 등으로 번역해도 된다.

또 어떤 번역자는 “的”의 반복 사용을 피하려고 문장 중에 반복되는 “的” 하나를 “之”로 바꿔 쓰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世界之 (혹은 “的”) 混亂而多事的 (혹은 “之”) 局勢”라고 쓰는 것은 위에서 말한 문제와 똑같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은 “世界混亂多事的局勢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혼란한 세계 국면)”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다.

원래 번역은 또 다양한 표현을 요구한다. 그러나 변화를 줄 수 없는 글자도 있다. 허자(虛字)가 그렇다. “之”를 쓰다 “的”를 쓰고, “須”를 쓰다 “要”를 쓰고, 또 혹은 “應該”를 쓰다 “應” 쓰는 식으로 쓰면 비록 글자는 다를지 몰라도 그 글자의 뜻이 반복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허자(虛字)는 반복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너무 글자 반복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他兩度以盜竊罪, 一次以欺詐罪入獄 (그는 두 번을 절도죄로, 한 번은 사기죄로 감옥에 갔었다)”, 이 말에 “度”와 “次”를 한 문장에 사용한 것은 훌륭한 번역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곳엔 둘 다 “度”를 쓰던지 아니면 둘 다 “次”로 써야 한다.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실자(實字) 이다. 예를 들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이다. 한 문장 안에 앞서서도 “嘆為觀止” 뒤에서도 “嘆為觀止”를 계속 반복해서 쓸 수는 없다. 영어는 한 문장에 2-3개의 형용사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모두 같은 단어로, 단지 강조를 할 수 있을 뿐 그 정도의 차이는 나타낼 수 없다. 이런 경우야말로 다른 같은 뜻의 단어를 찾아 단어 사용의 변화를 주어 번역의 반복과 단조로움을 피해가며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 굳더더기

우리는 아직까지도 마땅히 참고 할만 한 백화문 교과서와 백화문 사전이 없다. 그래서 문장에 사용된 글의 반복 여부를 알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작가나 번역자들은 반드시 단어 선택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加以收藏起來”는 잘못된 번역이다. 이는 “加以收藏” 혹은 “把它收藏起來 (그것을 잘 숨겨두다)”로 번역해도 된다. 그러나 “加以收藏起來”라는 번역은 틀렸다.

“舷(벧전)”은 배의 측면을 말한다. 그런데 이를 “舷側(현측)”라고 번역하면 틀린 번역이 된다. tuna는 “鮪(다랑어)”이다. 그러나 어느 사전을 뒤져보아도 “鮪魚”라는 물고기는 없다. 만약 이를 무슨 “魚”라고 번역하고 싶다면 “金槍魚(금창어)”라고 번역하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船帆”도 틀린 번역이다. 이는 “帆(돛)”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는 「중국어 단어」장에서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글 중 같은 뜻의 글들을 한 단어로 만들어 쓰던 글도 있긴 하다. 예) “船艙(선실)”

우리는 “原因多半是因為”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한눈에 쉽게 알아본다. 작문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할 때는 이 같은 틀린 번역을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這就是何以我要……的緣故(이점이 바로 내가 왜 ……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다. 이 중 “何以”는 생략해야 한다.

kneel을 “跪下身”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 곳에 “身”은 필요없는 글자이다. Nothing can hurt him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can을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는 “沒有什麼傷他心的事情了(그의 마음에 상처 줄 일은 없다)”라고 번역해주면 된다. 그래도 이중 “心”은 번역시 보충한 글자이고, can 즉 “能”은 번역하지 않았다.

“更為開誠佈公得多” = more open 는 말이 안 된다. 이는 “更開誠佈公(진심을 더 많이 털어 놓다)” 혹은 “開誠佈公得多(진심을 많이 털어 놓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財源來自何處”라는 말도 불필요한 글자가 많다. 이는 간단히 “財源在何處(재원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財從哪裡來(돈은 어디서 난 것인가)”라고 번역하면 된다.

## 기타

우리는 단어를 엉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영어의 roar는 사람, 가축, 물건(사물)등 모두에게 사용이 가능하나 중국어의 “吼叫”는 사물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the engine roared는 “引擎吼叫”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轟鳴 (요란스럽게 울리다)” 혹은 “轟隆轟隆響了 (덜컹덜컹하고 울렸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납치됐다고 가정해보자. 경찰이 이 소식을 받고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리려면 “營救他的警察就來了 (그를 구할 경찰이 곧 왔다)”라고 해야 한다. 여기선 “救兵就來了 (지원병이 곧 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救兵”이라는 말은 오직 군전쟁에서 지원군을 가르칠 때만 사용한다.

엄격히 따지면 “這種衣料接觸到皮膚上的感覺”라는 말도 틀린 말이다. 이 말은 마치 옷감이 감촉을 느낀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이 말을 “接觸皮膚後給人的感覺 (옷감이 살에 닿았을 때의 느낌)”라고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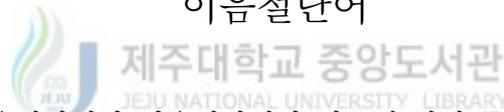


## 중국어 단어

영중 번역을 이야기 하면서 중국어 낱말과 단어를 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의 번역문은 백화문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고, 백화문 역사도 길지 않으며, 중국어가 번역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번역을 논할 때 중국어의 낱말과 단어를 논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번역문이 중국어로 쓰이는 이상 중국 사람이라면 이 점을 당연히 주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자주 틀리는 글자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다.

### 이음절단어



중국어 단어는 단음절단어와 이음절단어가 있는데 어떤 문장에는 반드시 이음절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부 번역자들은 이를 잘못 알고 무조건 단음절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단음절단어를 써도 되는 곳에도 이음절단어를 쓰곤 한다. 예를 들어 “一個人臉上長了許多酒刺”라는 말은 원래 틀린 문장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음절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長”을 “長有”라고 써서 틀린 문장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有”를 동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경우는 오직 “擁有巨資(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持有第1097號牌照(제1097호 번호판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신문 혹은 고문에서만 문언문과 백화문을 섞어 쓸 수 있다. 이 밖에 “有一條船(배 한 척이 있다)”도 “擁有一條船”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人(사람)”도 “人員(인원)”이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상황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두 개의 단음절단어를 합쳐 이음절단어로 만들기도 한다. “船帆”은 바로 “船”과 “帆”을 합쳐 만들어낸 단어이다.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문제는 어느 누구도 “船帆”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帆”이 배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굳이 문장에 이음절단어를 써야했다면 비록 문언문적인 단어이지만 중국 고대 시문을 보면 “征帆”, “風帆” 등에 단어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征帆”은 멀리 향해갈 때 사용하는 단어로 단거리를 향해하는 배는 “征帆”이라고 써서는 안 된다. 반면 “風帆”은 어떤 배를 말하던 다 사용할 수 있다.

필자는 “聆聽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아직 보지는 못했으나, 들어 본 적은 있다. 많은 이음절단어들은 같은 뜻을 가진 단음절동사로 만들어졌다. “歇息 (쉬다)”, “借貸 (대출하다)”, “望看 (바라보다)”. 예) “改天再望看你去 ( 따로 날을 잡아서 너 보러 갈게)” 중국어 국어사전을 참고하라. 그러나 필자 생각은 “聆聽”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諦聽”이나 “傾聽”이라는 단어로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을 표현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河岸”이라는 단어도 없는 것 같다. “岸 (강기슭)” 자체가 강기슭이라는 뜻이므로 “河”자와 같이 쓸 필요가 없다.

영어단어 colleague를 “同僚 (동료)”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관원이 그의 colleague를 말한다면 이는 “同僚”이다. 그러나 모 기업직원 혹은 어느 회장이 그의 colleague라고 말한다면 이는 “同事 (동업자)”라고 다르게 번역해줘야 한다. 우리는 아직 “同官為僚”, 즉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僚”라고 한다.

단음절단어를 이음절단어로 바꿀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예를 들어 “腦 (뇌)”자다. 특히 과학논문을 번역할 때 “腦”를 “頭腦 (두뇌)”, “腦筋 (머리)”, “大腦 (대뇌)” 등으로 글자를 더해서 번역해서도 안 되며 “智慧 (지혜)”, “心靈 (심령)”, “思想 (사상)” 등으로 바꿔 써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夢 (몽)”자도 이음절단어로 바꿀 수가 없다. “夢幻 (몽환)”도 “夢”이라고 할 수 없다.

동사 중에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동사가 있다. 사람이 무언가를 “擁有 (가지고 있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물이 무엇을 “擁有”하고 있다고는 못한다. 그래서 “某甲擁有巨資 (아무개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옳은 문장이고 “廚房擁有最新的電器設備 (주방에는 최신 전자제품들이 있다)”라는 말은 “擁有”가 사물을 수식하고 있어 다른 문장이 된다. 그리고 이 틀린 문장을 “廚房裡裝了…… (주방에 …을 설치한다)”로 고쳐 쓰면 된다. 사람들이 “裝了 (설치한다)”라는 말을 통속적인 표현이라 생각하고 있어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필자는 “有”자가 통속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작가나 번역자는 이 단어가 통속적이라고 생각해 이를 “產生 (생기다)”, “發生 (발생하다)” 아니면 “擁有 (가지고 있다)”라고 바꿔 쓰곤 한다.

I have get an idea를 “我產生一個觀念”으로 번역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엔 굳이 이음절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었다. 또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보통 토론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리려고 “我倒有個主意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라고는 말 한다. 그래서 I have get an idea라는 말은 “我倒有個主意”로 번역하는 것이 더 중국어답다.

“做朋友 (친구 하다)”라는 말도 꼭 “成為朋友 (친구가 되다)”라고 바꿔 쓸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成為朋友”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원수 사이에서 친구로 됐을 때 “倒成為朋友 (친구가 됐다)”라고 쓴다. 아무튼 사용할 단어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앞 뒤 문장을 살핀 후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단음절단어는 통속적인 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 어린이 용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과 어른들이 하는 말은 조금 다르다. 어른들은 가끔 아이들한테 “你的手手呢? (손은 어디 있니?)”, “你的鼻鼻呢? (코는 어디 있니?)”라는 어투로 말

을 한다. 그리고 “魚兒(물고기)”, “鳥兒(새)”란 말도 아이들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투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장에는 쓰면 안 된다. “手手, 鼻鼻”처럼 반복하거나 명사 뒤에 “兒”을 부쳐 쓰는 것은 모두 이음절단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游魚”, “飛鳥” 등의 단어처럼 원래 단음절인 단어를 이음절로 바꾸기 위해 더한 단어가 된 뜻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단어는 사용해도 된다. (“星星”이란 중국어가 있지만 이는 구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문장에서는 “群星” 혹은 “繁星” 등으로 써주는 것이 좋다.)

## 자동사와 타동사

필자는 이번 장의 머리말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는 번역에 있어 한번 꼭 짚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동사를 구분하지 못해 문법상의 오류가 많다. 예를 들어 “他失蹤了一粒珍珠”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다. “失蹤(실종)”은 자동사이어서 뒤에 목적어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他失掉了一粒珍珠(그는 진주 한 알을 잃었다)”라고 고쳐야 정확하다.

비록 “展開(전개)”를 타동사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자동사로도 사용 할 수 있다. “展開募捐運動(모금운동을 열다)” 혹은 “募捐運動已經展開(모금운동이 이미 열렸다)”가 그 예이다. 그러나 “開展”은 자동사로만 쓰인다. 예를 들어 “公司的業務有待開展(회사업무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他開展公司的業務”와 비교해 보라.

“探險(탐험)”은 자동사이다. 그래서 “他探險非洲(그는 아프리카를 탐험하다)”라고 쓰면 안 된다. “他到非洲探險(그는 아프리카에 탐험하러 갔다)”이라고 써야 한다.

“甦醒(회생)”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이다. 그래서 “甦醒他起來”라고 쓰면 안 된다.

수표가 “回籠(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다)”은 자동사이다. 그래서 “大量鈔票即將回籠

(대량의 현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다)”이라는 말은 있으나 “大量鈔票將予回籠”이라는 말은 없다.

“將予 (...할 것이다)” 뒤에는 반드시 타동사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將予制裁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말은 “甲要制裁乙 (갑이 을을 제재 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挹注 (보충하다)”는 자동사이다. 그래서 “挹注政府的支出”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은 “政府的支出靠……來挹住 (정부의 지출은……으로 보충한다)”로 고쳐야 한다.

## 단어 줄여 쓰기

중국어 4자 단어를 줄여 쓸 때는 우선 무슨 뜻인지를 파악한 후 글자 수를 줄여야 한다. 즉 단어는 아무렇게 줄여서 사용해서 안 된다. 긴 말을 줄이면 이해하기 쉬워지고 말이 간략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긴 말을 잘못 줄여 말이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다.

영어 maintenance란 단어는 “기계기능을 유지시키다” 혹은 “집의 효능을 유지한다 (즉 집을 수리 한다는 뜻)”는 뜻을 갖고 있어 “維持修理 (보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줄이기 위해 “維修”이나 “保存”이라고 번역한다. 이 중 “維修”라는 단어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기까지 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 두 단어 모두 어색하다. 그러나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維持”가 낫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 우리는 공장에서 공장기계를 관리해주고 기계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을 “維修人員 (수리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의 업무가 7-8개 정도로 더 늘어나면 우리는 이들을 또 어떻게 부를 것인가? 결코 “維修存賣換運人員”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모두 “管理員 (관리인)”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끔 너무 정확한 번역을 고집하다 오히려 중국어를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喊問”이라는 단어는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큰소리로 외치듯 무언가를 묻는 것을 “喊著問道 (외치며 묻기를)”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말을 줄여 쓰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은 단어를 줄이기 전에 줄여 써도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낱말과 단어들을 억지로 줄여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이 생겨난다.

“取代 (대치하다)”는 요즘 매우 인기 있는 단어다. 우리는 “A公司將取代B公司在歐洲的獨占地位”로 번역한 문장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고 있다. “取代”는 replace; take the place; instead를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말이며 이 또한 “取而代之 (타인의 지위를 빼앗아 대신 들어서다)”라는 중국어를 줄여서 생긴 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우리가 말하는 습관으론 이 말을 “A公司代替了B公司在…… (B회사의…자리를 A회사가 차지했다)”라고 한다. 물론 이 말을 “A公司取B公司在歐洲的獨占地位而代之”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군더더기가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문법상 “取而代之”를 “取代”로 줄일 수 없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는 대부분 “取代 (대치)”를 쓸 곳에 “代替 (대신)”로 바꿔 써도 된다.

모두들 《史記項羽本紀》“秦始皇游會稽,渡浙江,梁與籍俱觀,籍曰:‘彼可取而代之’.”라는 문장을 한 번 짚은 읽어 보았을 것이다. 이는 “取而代之”를 제일 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예를 들자면 경유로 기계 엔진을 가동하니 매연을 많이 분출하고 엔진기능이 떨어져 연료를 휘발유로 바꾸려는 상황도 “取代”라고 쓰면 안 된다. 그렇다고 문법상 문제가 없는 “取而代之”로 바꿔 써도 이는 틀린 표현이다.

심지어 요즘은 “取而代之”를 “代取”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 이는 더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예금자가 직접 자기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지 못해 타인에게 부탁을 해 돈을 찾는 상황만 “代取”라고 쓸 수 있다.

단어 줄여 쓰기로 유명한 사람은 수카르노<sup>14)</sup>를 들 수 있다. 그는 new emerging force을 Nefos 으로 줄이고, neocolonialism 과 imperialism을 nekolim으로 줄이는 등 여러 단어를 줄여 썼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카르노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없

---

14)역주: Sukarno 인도네시아 (1950~1965) 초대 대통령.

기에 단어를 내 마음대로 줄여 써서는 안 된다. 더구나 수카르노가 줄여서 썼던 단어는 그가 해야하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

## 상황에 맞는 단어 선택

우리는 뜻을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형용사를 자주 보곤 한다. 그 차이는 하나는 좋은 뜻으로, 하나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어의 sensuous는 좋은 뜻이고 sensual은 나쁜 뜻의 단어이다. sensuous는 감상적 느낌의 표현 단어로 sensuous music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고, sensual은 육체적 쾌감을 즐긴다는 뜻으로 호색, 음란 등을 표현 할 때 쓰는 단어이다. 중국어에도 이런 형용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 “肉體(육체)”란 글자는 원래 나쁜 뜻은 없었다. 그러나 요즘 이 단어가 자주 “肉欲(육욕)”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사람들이 이 단어의 사용은 점점 사용하기 꺼리게 됐다. (“肉身”이라는 단어도 아마 머지않아 나쁜 뜻의 글로 변할 것 같다.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자.)

wipe out이라는 형용사도 위와 마찬가지로 뒤에 붙는 목적어가 만약 도적일 경우, 이는 “掃蕩(소탕)”이라 번역해야 한다. 반대로, 만약 아군이 적군에게 wipe out되었을 경우에는 “掃蕩”이라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앞 「총론」 부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만약 아군이 적군에게 wipe out를 당했을 경우는 “掃蕩”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覆沒”라고 번역해야 한다. 또한 아군이 harass 했을 경우에는 “襲擊(습격)”라 번역할 수 있지만 적군이 harass했을 경우는 “滋擾(소요)”라고 번역해야 한다.

## 별자(別字), 발음이 같은 글자

옛 문헌들을 보면 별자(別字)가 많다. 예를 들어 “子規”라는 글자만 해도 “子鷓”, “子鳩”, “子 ”, “子鷓”, “子鷓”등 6글자로 쓰였었다. 이 중 “鷓”, “ ”은 “規”과 발음이 같고, 통용되는 글자다. 이와 같은 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참고로 朱起鳳의 《辭通》에서는 더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반면 요즘 사람들은 사전과 참고 도서들이 훨씬 다양하고 많아져 글자를 옛날처럼 막 쓸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이 별자(別字)를 안 쓰는 것은 아니다. 전에도 《字辨》<sup>15)</sup>과 《實用文字學》<sup>16)</sup> 편집자가 많은 지적을 해줬다. 지금도 만약 두 분이 계속해서 별자(別字)를 잡아내신다면 분명 더 많은 오자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면

“昏厥”이지 “昏蹶”가 아니다.

“碰(우연히 만나다)”를 “ ”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나 “撞”이라 쓸 수는 있다. 曹雪芹이 바로 이렇게 쓴다. 그런데 필자도 어째서 손 수변 “撞”은 써도 되고 발 즉변 “ ”는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글자의 탄생과 글자의 변화에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聲譽鵲起”이지 “雀”가 아니다.

“這班人”이지 “這般人”이 아니다. (“這般人”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這班人”이 말하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과는 다르다.)

“真相”이지 “真像”이 아니다.

“遂心”이지 “隨心”이 아니다.

“待(stay)”는 “呆”나 “耽”으로 쓰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잘 못 쓰고 있는데, “耽”과 “待”의 발음만 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稍微”도 요즘 “稍為”라고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15)역주: 《字辨》, 顧雄藻, 1933 上海 顧詢發行初版; 1949 香港 商務印書館增訂版.

16)역주: 《實用文字學》上下, 吳契寧, 1980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一千零三十五”의 “零”도 현재 “另” 혹은 “〇”으로 쓰고 있다.  
(아랍숫자 10035도 “一萬零零三十五”라 쓰지 말고 “零”을 한번만 써주면 된다). “〇”을 중국어로는 “圈”이라고 한다. 그래서 “一〇〇三五”라고 쓰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읽을 때는 “圈”이라고 읽어선 안 된다.

필자처럼 중국 글자를 많이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직 열심히 사전을 뒤지는 수밖에 없다. 비록 사전을 뒤져서 더 혼동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말이다. (사전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 정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많은 사전들이 몇 십년 전에 편찬된 것이라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글자나 단어의 뜻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일부 사전에서는 어려운 단어와 새로운 단어에 대한 해석은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나마 그 외 다른 글자나 단어는 다 찾을 수 있다. 특히 고사성은 반드시 사전을 찾아 봐야 한다. 이유는 사자성어인 경우 두 글자만 잘못 써도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마다 성어의 글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여러 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 변질된 중국어

“收入眼底 (눈 안에 들어오다)”는 “收入眼簾”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러나 “映入眼簾”이라 쓰는 것은 된다.

“振筆疾書 (열심히 글을 쓴다)”는 “揮筆疾書”라고 쓰면 안 된다. “揮毫”라고만 쓸 수 있다.

“喜上眉梢 (기분이 좋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는 있어도 “笑逐眼開”를 “喜逐眼開”라고 쓰면 안 된다.

“涉足 (발을 들여 놓다)”와 “插足 (참여하다)”를 혼동해선 안 된다.

“漁舟 (어선)”의 “漁”는 물 수변이고 “魚網 (어망)”의 “魚”는 물 수변이 없다. 두 글

자를 혼동해선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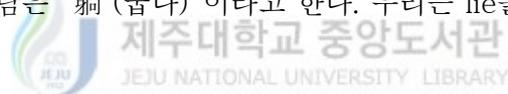
만약 글자를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사전을 찾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唯唯諾諾 (하자는 대로 순종하다)”이지 “唯唯是諾”는 아니다. (“唯命是從”이라 쓸 수도 있다.)

## 잘못된 단어 사용

영어 단어 중 부인이 남편을 “보러 가다”의 visit는 “訪問 (방문하다)”이 아니다. 이를 번역할 때는 두 부부가 “會晤 (회견하다)” 혹은 “會面 (만나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영어의 lie는 사람이나 사물을 수식해도 된다. 그러나 중국어는 다르다. 사물은 “擱 (놓다)”라고 하고 사람은 “躺 (눕다)”이라고 한다. 우리는 lie를 자꾸 “躺”으로 번역하게 되는 것 같다.



일부 타동사는 오직 특정한 목적어(object)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carpet of sparkers를 “閃光物體構成的地毯 (반짝이로 만들어진 카펫)”이라 번역하면 크게 틀린 점은 없으나 엄격히 따진다면 “地毯”에는 “織成 (짜서 만들다)”이라는 동사를 써야 더 정확하다.

영어에는 옷이 사람에게 use된다 라고 말하지만, 중국어는 사람에게 “用(사용하다)”가 아닌 “穿(입혀졌다)”라고 한다. 이렇게 쉬운 말도 우리는 use만 보면 생각 없이 “用”이라고 번역한다. 이 밖에 시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用”이 아닌 “花費 (들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래서 “我用了一天功夫去研究這個問題”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우리는 희망을 “抱 (가지다)”한다고 표현하지 “存 (저장하다)”한다고는 말하지 않는

다. 그런데 중국어에는 “存希望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순수 중국어로, “存心(마음을 먹다)”이라는 기존 단어에서 생긴 말이다.

fragile도 “易脆”가 아닌 “脆(부스러지기 쉽다)” 혹은 “易碎(깨지기 쉽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啞然(아연)”은 “不說話(말을 안 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웃음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不說話”라는 뜻은 “默然”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visitor는 동사와 명사를 합친 “訪客(방문객)”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는 “客人(손님)”, “來客(오신고객)”, “客(객)” 등으로 번역해야 한다.

“綁富人的票(부자를 납치하다)”라고는 말하지만 “綁架富人”을 “綁票富人”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設施(시설)”와 “設備(설비)”는 다르다. “設施”은 “規劃實施(계획을 실시하다)” 혹은 “措置(조치하다)”라는 뜻이고, “設備”은 실제 사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혼용하곤 한다.

“岸”이 바로 강기슭이다. 이를 “河邊(강가)”이라고 쓸 수는 있으나 “河岸”이라고 쓴다는 것은 금지초문이다.

“避免(피하다)”은 Avoid와 뜻이 좀 다르다. 중국 사람들은 “以防偷懶而虛度一生(게으름을 피워 평생을 헛되이 보내는 일을 피해야 한다)”이라는 말을 해도 “避免因偷懶而虛度一生”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做出一件表現獨特的行為”라는 말은 어딘가가 이상하다. “行為(행위)”를 “做出(만들다)”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여기의 “行為”는 “事”로 바뀌어야 한다.

보통 번역을 하다 보면 “求取進步”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進步(진보)”를 “求”한다고는 해도 “取”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영어에 get를 썼다고 무조건 따라서 “取”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 단어 연구

아직도 많은 단어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 “幫忙”, “幫助”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사 혹은 명사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자면 이 두 단어는 구분되어 사용 된다.

예)

“我需要你幫忙” (여기서는 “幫助”가 더 적합하다.)

“他的幫助太少” (여기에 “幫忙”이라 쓰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幫助”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請你幫我的忙” (요즘 사람들은 “請你幫忙我”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幫忙”은 자동사이다.)

### “款”, “錢”

“款” (“款子”, “款項”)과 “錢”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이다. 다만 사용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他有錢 (그는 돈이 있다)”라는 말은 “他有款子”라고 하면 안 된다. “他有一筆錢存在我這裡 (그의 돈이 나한테 좀 있다)”와 “他有一筆款子在我這裡”는 같은

말이다. “巨額金錢 (거액의 돈)” 과 “巨額款項 (거액의 자금)”도 같은 말이다. “取款單子 (금액 인출용지)”라는 말은 “取錢單子”라고 말해선 안 된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款”은 격식을 갖출 때 쓰는 글자고 “錢”은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는 단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 “贈禮”

gift를 “禮物 (선물)” 혹은 “贈品 (증정품)”이라고는 하지만 “贈禮”라고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며 놀다 헤어지기 전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말을 문언문으로 “互相贈禮而別”라고 한다. “他的贈禮使我激動”이라는 말은 없다. 요즘은 이렇듯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게 문제다.



## “座”

한 사람에게 존칭어를 사용할 때 “座”자를 쓴다. 예를 들어 편지 등을 쓸 때윗사람을 존대할 때 “座前”, 존대하려는 상대가 “幫辦 (보좌관이나 차관)” 혹은 “督察 (감독관이나 감찰관)”일 때는 “座主”, “鈞座”, “督座” 등을 쓴다. 그래서 거물급 인사의 비행기는 “座機”가 되고, 그의 자동차는 “座車”가 된다. 일반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고장나서 길가에 세웠을 때 그의 “座車”가 고장났다고는 말 하지 않는다.

## “做”, “作”

중국 북쪽의 사람들은 “做”와 “作”의 발음이 같아서 혼용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아무리 같은 음을 가진 글이라도 두 글자가 사용되는 곳은 엄연히 다르다. 《國語辭典》을 보면 서로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做飯 (밥한다)”은 “作飯”이라 쓰지 않으며 “做面子 (얼굴 껍한다)”도 “作面子”라 안 쓴다. “作弊 (커닝을 한다)”도 “做弊”라고 쓰지 않으며 “作陪 (곁에 있어주다)” 역시 “做陪”라 하지 않는다. 제일 좋은 예로, “做作 (가식적이다)”는 “打打罵罵 (싸우다)”, “吃吃喝喝 (먹고 즐기다)”와 같은 “疊字 (중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글자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마치 “造作 (고의로 조작하다)”는 “造做”로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 “說”, “道”



요즘 사람들은 말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찌해서인지 “說道 (말하다)”를 “道”라고만 한다. 영어에 he said를 “他說 (그가 말하길)”라고만 번역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he replied라는 말도 “他答道 (그가 답하길)”가 아닌 “他答”라고만 번역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紅樓夢》에서는 이 “道”자를 생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22회를 보면 “風姐, 冷笑道” (현 시대 번역자들 습관으로는 이 말을 “風姐, 冷笑 (風姐가 비웃으며 말하길)”) 그리고 “賈璉笑道”는 “笑了笑”라고 번역 할 것이다.) “風姐湊趣笑道”, “賈母亦笑道” 등의 말이 있고 이 외에도 “笑道”의 예문을 많이 볼 수 있다. 아무튼 번역자들은 이런 문장들을 일반적으로 단지 “他冷笑”, “他嘆氣”, “他回答”라고만 번역하고 따옴표를 찍어 그 사람의 말을 번역하곤 하다. 그러나 이렇게 줄여서 쓴 번역은 마치 작가가 할 말

을 다 안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번역이 생긴 이유가 진정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더 간략한 것을 원해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필자가 고전 소설을 많이 읽어 이런 편견이 생긴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原來”, “因為”

“原來”와 “因為”의 뜻은 다르다. for는 “原來”라고 번역하고 because는 “因為”라고 번역하면 된다는 어느 선배님의 말씀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중국어에는 “原來”로 시작되는 말이 많다. 반면, 그러나 “因為”는 앞에 반드시 뒷문장을 엮을 말이 있어야 한다.



요즘 must를 “必然”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다. 틀린 번역은 아니나 일부 문장에서는 “必然”이라 번역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你必然要去”라고 말하지 않고 “一定 (필히)”라고 말한다. 그리고 “必然的結果 (필연적인 결과)”라는 말은 “一定”이라고 쓰면 안 된다.

## “禮貌”

우리는 polite란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서 “禮貌”를 형용사처럼 사용하게 됐다. 그러

나 “這個人有禮貌 (이 사람은 예의바르다)”, “這個人答話很有禮貌 (이 사람은 묻는 말에 예의바르게 답해준다)”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這個人是禮貌的”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 “小量”, “少量”

우리는 자주 “小量”과 “少量”을 두고 고민한다. “大量”을 썼다면 대조되는 말은 “小量”이고, “多量”이라는 말에 대조되는 것은 “少量”이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어 습관은 “小量”보다는 “少量”을 더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결코 “小量”을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時間”과 “時期”는 다르다. 그런데 요즘엔 이 두 단어를 혼용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我花好多時間去辦這件事 (난 많은 시간을 들여 이 일을 했다)”라는 말에는 “時期”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在那一段很長的時期裡他什麼人也不見 (그는 그 긴 기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이라는 말에는 “時間”이라 쓰면 안 된다.

## “項”

“項”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一項問題”,

“一項辦法”, “一項結果” 등 “項”을 쓴 말들을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項”을 “個 (가지)”로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個”가 들어간 말은 통속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項”은 “件”이라는 뜻이므로, 그 예로 운동은 “個”가 아닌 “十項運動 (열 종목의 운동)”이라고 써줘야 한다. 그래서 “一件問題”, “一件辦法”, “一件結果”라는 말도 모두 틀린 말이다. (이는 「나쁜 버릇」 장을 참고 하라.)



# 영어단어

영중 번역에 관해 우리의 문제점은 영어 단어를 단 하나의 대치어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Begin은 무조건 “開始 (시작)”로, expect는 무조건 “期待 (기대)”로, through는 무조건 “經過 (지나다)”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러면 문제가 많다.

영어 단어가 다 apple 혹은 red 같이 단 하나의 대치어만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 반대다. 그 중 철학적 명사를 번역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시(詩)의 비유적인 표현, 심지어 자주 쓰이는 단어라 할지라도 어느 하나 쉬운 번역이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어에는 매우 자주 쓰이는 단어가 몇 십 개 있는데,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경우에 따라 이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가 표면적 의미와 다를 때가 있으며, 중국어로 번역한다 해도 중국어 표현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잘못 번역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을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 1. 동사

agree라는 단어는 짜증나게 하는 단어다. 우리가 I agree that……이라는 말을 꼭 “我同意的說……”라고 번역하는데, 이를 중국말 습관에 맞게 번역하려면 “我認爲…… (내 생각에는……)” 혹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쓴 후 마지막에 “我認爲不錯”라고 마무리해야 한다. 이래야 중국어답다.

argue라는 단어는 “爭論 (논쟁하다)”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They argue that……이라는 말은 “他們爭論…… (그들이……을 두고 논쟁을 하다)”이 아니고 “主張 (주장하다)”한다는 뜻이다. it argues that도 “爭論”이 아닌 “由此可見 (여기서 …을 알

수 있다)”이라는 뜻이다. 물론 argue라는 단어를 “證明”, “顯示”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이리하면 외국어 번역 티가 너무 난다. 사람들은 보통 argue라는 단어를 무조건 “爭論(논쟁하다)” 아니면 “辯論(변론하다)”으로 번역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한사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라면 사전엔 이 단어에 대해 주석까지 달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begin이라는 단어도 번역자들이 귀찮아하는 단어다. They began to cry 라는 간단한 말도 우리는 단순히 “他們開始哭了”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번역문장을 보고 있으면 번역자가 작가의 뜻을 알고 있지만 번역문은 중국말 습관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 사람들이라면 분명 이 말을 “他們都哭起來了(그들은 모두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거나 “他們都哭了(그들은 모두 울었다)”라고 말 할 것이다. 이렇듯 번역자들은 begin to 을 무조건 “開始(시작)”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begin을 번역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때로는 상황에 맞게 다른 말로 번역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I began to see why he love her so much 중 began은 되도록 “漸漸(점점)”이라고 번역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expect라는 단어도 번역하기 쉽지 않다. 날씨를 예측한다는 말로 I expect storm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expect를 “我期待暴風雨”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 못 된 번역이다. 그렇다고 expect를 다른 중국어로 “預期”, “指望(기대하다)”, “盼望(바라다)”, “料想(예상하다)” 등으로 바꿔 써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중국 사람들은 폭풍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상예보를 통해 미리 알고 있어 폭풍우를 대비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暴風雨會來(폭풍우가 올 것이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C.O.D*사전을 보면 I expect storm이라는 말을 “暴風雨會來(폭풍우가 올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는 expect는 regard as likely 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as expected라는 말도 “如所預期”로 번역하지 말고 “果然不出大家所料(과연 모두가 예상했던 바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establish라는 단어도 bring, make 등의 단어처럼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단어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중국어로 “建立 (건립하다)”라고만 번역해서는 안 된다. 물론 To establish a republic government 이라는 문장은 “建立”로 번역하는 것이 옳지만 만약 “生意 (장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establish를 “建立”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장사할 기반을 다졌다 할 때는 “建立”라고 한다. 그래서 he established himself as a grocer 는 “他建立了自己食品商地位”라고 해선 안 된다. (독자들이 이 문장을 이해 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번역문인 중국어 자체가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는 “他已經成了食品商 (그는 이미 식품업체 상인이 되었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중국어 단어를 혼동하고 있듯이 영어 단어도 많이 혼동하고 있다. 그 중 제일 쉽게 혼동하는 단어로는 gasp 와 gape가 있다. gasp를 “張口驚視”로 번역해도 앞 뒤 문장 연결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이는 틀린 번역이다.

“他露齒而笑地說 (치아가 다 보이도록 웃으며 말하길)”라는 말은 grinned를 번역한 것이다. 사전의 의미로만 본다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는 중국말 표현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치아를 보이게끔 웃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 할까? 아마 “笑得嘴都咧開來了”라고 말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식 표현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쓰러린 고통 혹은 분노로 인해 치아를 보일 때도 쓴다. 이와 똑같은 뜻으로 “牙咧嘴 (치아를 드러내고 입을 일그러뜨리다)”라는 말도 있는데, 보통 영중사전에는 수록돼 있지 않아 번역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어 국어사전을 보면 “牙咧嘴”는 “遇痛苦時面部不寧之狀 (고통을 격을 때 얼굴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C.O.D*사전에는 이 외에도 “멍하게 웃다” 혹은 “남을 멸시한다”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른 대치어를 찾아야 한다.

interview라는 단어도 꼭 “會談 (회담하다)”, “碰面 (만나다)”, “訪問 (방문하다)”, “謁見 (알현하다)” 등으로 만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선배가 후배를 불러 말을 나눴다는 말을 “問話 (면담을 하다)”로 번역해야 하며,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 할 때는 번역자가 상황 속 두 사람의 관계를 잘 파악한 후에 사용할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persuade를 “說服”라고 번역하는데 실제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영·영 사전의 해석을 보면

Convince (person, oneself of fact that thing is so);

induce (person to do , into action)\_*C.O.D.*

1. to cause (some one) to do something, especially by reasoning, urging, or inducement.

2. to induce (someone) to believe something. \_*W.N.W.D.*

“說服”의 중국어사전의 해석은 “謂以言語折之使服 (말로 상대방을 눌러 복종케 한다)”라고 되어 있다.

두 사전의 해석이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說服”라는 뜻에는 화자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화자의 말을 듣고 동의하게 된다는 뜻이 있는데, persuade 는 이런 뜻이 없다는 것이다. 영·영 사전의 해석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운동을 선동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청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참여하도록 했다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영·영 사전의 해석은 청자들이 화자의 주장을 원래 동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감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영 사전이 말한 청자들은 전에 선동자의 주장을 반대했거나 확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 했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다. 한마디로 이 청자들은 화자의 발언으로 뜻을 같이 하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任充四가 편찬한 《精選英漢詞典》에는 “說動,動誘,說之使聽,誘之使從,說之使信,使確信。”이라고는 써 있으나 “說服”이라고는 어디에도 써있지 않다. 그럼 지금 독자가 한번 I persuaded him to support my movement.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참고로 이 말도 절대 “說服”이라고 번역하지 않는다.

Promise라는 단어도 역자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단어다. 번역자들 십중팔구는 he promised to give the poor man ten dollars를 “他答應給那個貧漢十元”이라고 번역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돈을 준 이는 누구의 요구에 응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혹은 동정에 의해 준 것일 수도 있어 위와 같이 번역하면 틀릴 수 있다. 또 어떤 역자는 이 단어를 “許諾”라고 번역 하는데 이도 잘 못 번역한 것이다. “諾”자는 이미 “應允”하고 “答應”했다는 뜻으로 “許諾”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럼 다시 위 문장으로 돌아와 이를 “他說他一定給那個窮漢子十塊錢 (그는 가난한 청년에게 십 위안을 주겠노라고 말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He promised to put an end to it 이라는 문장도 절대로 “他答應結束這件事”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말을 “他答應再不許有這種事情發生”으로 번역하면 옳은 문장이 된다.

Prove라는 단어는 우리를 번역의 함정에 곧잘 빠트리는 무서운 단어다. his suggestion proved a god-send 의 prove를 “證明 (증명)”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것 같지만 이는 틀린 번역이다. “他的建議證明是個天賜”라는 문장에서 prove는 be found to be, turn out to be라는 뜻으로, “證明”이라는 뜻은 전혀 없다. 그리고 prove를 “證明 (증명)”이라고 잘못 번역해서 중국어 표현이 이상해지는 문장이 또 있다. “但以往的事實,不能證明此項理由的正確 (그러나 지난 사실이 본 이유가 맞다고 증명 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但就以往的事實來看,這一個說法並不可靠 (그러나 이전 사실로 보면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바꿔 써야 중국어 표현에 맞다.

It doesn't prove that도 “總不能證明……”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總不見得…… (결코·라고 할 수 없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으며, it prove that……도 “它證明……”이 아니라 “這可見……( …으로 알 수 있다)”으로 번역해 주는 것이 좋다.

영어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stare라는 단어를 중국어의 이음절단어로 옮기기 위해 “瞪視”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瞪視”라는 단어는 원래 중국어에 없던 단어로 중국 사람들에게도 매우 낯선 단어다. 그러므로 이는 중국어 표현에 맞게 “他跟我瞪眼 (그가 나를 찌려보다)”이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백화문에는 좀 고문적인 느낌이 들진 모르지만 《史記·相如傳》을 보면 “張目 (눈을 치켜뜨다)”라는 단어도 “瞪視”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결코 번역자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기존 중국어 단어 중 사용이 가능한 글자가 있다면 굳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자고로 새로운 용어나 단어를 만들던 사람들은 모두 모국어 지식이 풍부했고 모국어를 매우 능통한 자들이었다. 또한 그런 사람들만이 글을 만들 자격이 있다.

stop이라는 단어도 쉬운 단어 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우리는 보통 they have stopped doing business with us.라는 말을 “他們已經不跟我們做生意了(그들은 이미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他們已經停止和我們做生意了”이라고 번역하면 이 말은 중국어 표현에 맞지 않게 된다. “停止(정지)”라는 말은 “工程停止(공사중지)”나 “停止交易(거래중지)”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다.

treat도 신중한 번역을 요구하는 단어다. 우리는 이 단어만 보면 반사적으로 “對待(대처하다)” 혹은 “處理(처리)”라고 번역하는데, 실제 중국어는 “事件(사건)”만 “處理”한다고 하며, 사람은 “對待”한다고 말한다. 반면 영어의 treat는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chemical treatment 즉 “化學處理”라고 번역하는 말을 보도록 하자. 우선 우리는 무엇이 chemical treatment인지를 알아야 한다. 옷감을 예로 들자면 요즘 구겨지지 않는 옷감이 있는데 이 옷감이 바로 화학재료를 이용해 특수 말림과정을 거쳐 모양을 잡아 풀칠할 필요 없이 접선이 유지 되어 구겨지지 않는 옷감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처리과정을 알고 나면 chemical treatment 를 “化學加工(화학가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treats는 소설주제를 정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處理”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try to도 엉망으로 번역하고 있다. 요즘엔 어떤 문장에든 무조건 “試圖”라고 번역한다. 예를 들어 I will try to bring him here는 “我會試圖帶他到這裡來”라고 번역하고 I tried to make them reconcile는 “我試圖叫他們和好”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try to는 앞뒤 문장을 보고 나서 거기에 맞게 번역해줘야 한다.

예)

I tried to recall는 “我用心回想。(난 열심히 되새겨 보았다)”이라고 번역하고.

I tried to make them reconcile는 “我已經想了法子叫他們和好。(그들을 화해

시켜줄 방법을 이미 생각해 뒀다)”라고 번역한다. (만약 역자가 성어를 즐겨 쓴다면 이 말을 “使他們言歸於好”로 번역해도 좋다.)

## 2. 명사

advice는 “忠告 (충고)”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게 advice하는 것은 “忠告”라는 뜻이지만 친구가 일 처리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advice는 “給你出主意 (아이디어를 주다)”라는 뜻이다.

centuries는 “幾世紀 (몇 세기)”, “幾十世紀 (십 여 세기)” 등으로 번역 할 수 있다. 사실 이 단어는 가르키고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를 알아낸 후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을 좀 더 쉽게 하려고 꾀부리며 “若干世紀 (몇 몇 세기)”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번역자에게 별로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

confederate 라는 단어는 “同類 (같은 부류)”라는 뜻이 있지만, 이 단어는 나쁜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때로는 “黨羽”로 번역해야 한다.

everybody를 “每一個人 (사람마다)”이라 번역하는 것보다 “人人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중국어 습관에 더 가깝다.

her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다. here I will give details about my escape. 라는 말 중 here는 “這裡 (이곳)”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원저자가 본 책, 이번 장, 혹은 이번 절 등 어느 곳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번역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 된다.

myth는 “神話 (신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Myth는 모든 종류의 신앙과 공상들을 말한다.

petroleum resin은 “樹脂狀石油沉淀物 (수지모양의 침전물)”이지 “石油制樹脂 (석유로 만든 수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써 놓으면 쉽게 혼동하곤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bread and butter도 “麵包和牛油 (빵과 버터)”가 아니고 “塗了牛油的麵包 (버터 바른 빵)”이다.

우리는 have reason to believe 의 reason을 잘 못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 말을 “有理由相信”이라고 번역하는데 중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 중국 사람들 생각엔 어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我相信 (난 믿는다)”, “我的確相信 (난 확실히 믿고 있다)”이라고 말하지 “有理由相信”이라고 안 한다.

영국 사람들은 저 사람 “taste가 매우 좋다”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역자들은 이를 당연히 “趣味”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趣味高尚 (취미가 고상하십니다)”하다고 말해도 알아듣는다. 아무래도 이 말은 번역 과정에서 생긴 말인 것 같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근대 소설집 한 권을 편집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우수한 소설 작품들을 선별해 편집하여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들이 보낸 찬사가 you have a very good taste 이었다. 당신은 이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필자는 “老兄的眼光真了不起 (선생님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해할 것 같다. 좀 더 문언문으로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이 말을 “精於鑑賞, 審辨力強 (감상력이 뛰어나며 심사분별 능력이 강하다)”라고 이해할 것이다.

### 3. 형용사

better라는 단어보다 번역하기 쉬운 단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중국어로 번역된 문장들을 보면 여전히 어색한 문장들이 많다. 예를 들어 “他得到了一個較好的工作”라는 말은 he has got a better job을 어색한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他找到了一個好事 (그는 좋은 일거리를 찾았어)”라고 표현하지 “比較 (비

교)”라는 말을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왜 이런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他找到了事,比上次的好 (그가 일거리를 찾았는데 저번 일 보다 좋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corpulent를 “發福 (몸이 좋아 지졌다)” 아니면 “發財身發 (돈을 벌면 살도 찐다)”라고 표현한다. 중국 사람들은 마치 살찌는 것과 부자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쓰임의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大塊頭 (큰 덩치)”는 “富裕 (부유)”를 비유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가 자주 오역을 하게 되는 이유기도하다. 그리고 opulent “富裕 (부유하다)”와 corpulent “肥胖 (뚱뚱하다)”의 어원은 원래 다르다.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死屍 (죽은 시체)” 즉 corpse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된다. corpse는 라틴어로 “身體 (신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grateful memories는 “充滿感激的記憶”가 아니고 “愉快的往事 (즐거운 지난날의 추억)”이다.

hypocritical은 꼭 “偽善 (위선)”이라고만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 shall be hypocritical if I consent to this vice 라는 말에선 절대로 “偽善”이라고 번역해선 안 된다. 이는 “口是心非 (겉과 속이 다르다)”로 번역해야 한다.

요즘 developing countries와 underdeveloped countries라는 단어를 가끔 듣는데 이는 대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는 국가들을 말한다. 현재 Underdeveloped는 중국어로 “開發不足 (개발부족)”, developing은 “開發中 (개발중)”이라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서방 국가들은 (물론 이 국가들은 모두 fully developed이다.) 처음에 위에서 말한 국가들을 backward (낙후)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명칭은 듣기 안 좋다는 이유로 underdeveloped로 바꿨다. “有待開發 (개발이 필요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명칭 또한 듣기 안 좋다 하여 바꾼 것이 지금의 developing “在開發之中 (개발중인)”이다. 사실상 어느 단어로 바뀌도 “落後 (낙후)”라는 뜻은 여전한데 말이다. 더구나 일반 사전에는 아직 developing에 대한 해석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독자

들은 알아서 이해해야 하는 실정이다.

new는 “新 (새로운)”이 아닐 수도 있다. We will move to a new place는 새로운 곳이 아니라 “另外 (다른)”라는 뜻으로, 매우 오래된 곳일 수도 있다.

일부 단어들은 원래의 뜻과 관계없이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public school는 공립대학이 아닌 귀족학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립대학이라 말한다.) 필자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영·중 번역작업은 번역자가 마치 함정과 지뢰가 가득 찬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 조금만 방심해도 오역을 하게 된다.

ready to give assistance에서 ready는 “準備 (준비한다)”가 아닌 “現成 (완성된……)”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隨時可以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simple은 “簡單 (간단)”이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simple dress는 “簡單衣服 (간단한 옷)”가 아닌 “便服 (평상복)”이다.

useful은 간단히 “有用的 (쓸모 있는)”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이도 때로는 다르게 번역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권 사람들은 수년간 투병 생활을 한 환자가 유능한 의사의 치료로 병이 완치되었을 때 「그는 useful life를 살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를 “有用的生活”이라고 번역 할 수도 있지만 말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만약 이 환자가 원래 엔지니어였다면 이 사람의 회복은 혼자만의 건강 회복이 아닌 사회를 위해 다시 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경우에는 “為社會服務 (사회를 위해 봉사하다)”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맞다.

서양 사람들은 겨울에 술을 마시면 warning하게 해준다는 표현을 쓴다. 중국어에도 “禦寒 (방한)”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 이 말을 굳이 영어처럼 말을 풀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He found the boys story incredible이라는 말의 incredible과 비슷한 뜻을 가진 unbelievable이라는 단어는 요즘 다 “難以置信 (믿기 어렵다)”이라고 번역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靠不住 (믿기 어렵다)”로 번역해준다면 더 자연스러운 중국어가 될 것이다. (솔직히 요즘 번역문에 “難以置信”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 4. 대명사

영어를 배워 본 사람이라면 그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다 you를 번역 할 줄 알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미국 여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we love you Beatles”라는 노래도 우리는 분명 “披頭四,我愛你 (비틀즈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번역 할 것이다. 그러나 비틀즈는 네 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이므로, “你們 (너희)”이라고 번역해줘야 정확하다. 영국 사람들은 왜 you라는 제2인칭 대명사를 단수와 복수로 나누지 않아 매번 번역 할 때 you가 “你”인지 “你們”인지 확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번역자들은 you를 번역 할 때면 우선 그 상황이 과연 두 사람 간의 대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정확히 번역해줘야 한다. 무조건 “你”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부를 때도 boys나 girls가 아닌 you라고 만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도 “你們”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인 아빠가 귀가 할 때 무언가를 손에 들고 오며 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맞추라고 물어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전 가족에게 묻는 상황이면 이때도 “你們”이라고 번역해줘야 한다. 이렇듯 번역자들은 대명사를 조심히 번역해야 한다.

## 5. 개사

between을 무조건 “之間 (사이)” 혹은 “當中 (...가운데)”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The relation between them 을 “他們之間的關係”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他們的關係 (그들의 관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밖에 a bond between friend도 “朋友之間的牽繫 (친구 사이의 연결)”라고 번역하는 것 보다 “友誼 (우의)”라고 번역하는 것

이 낫다.

“這項攻擊出自A將軍的命令。(이번 공격명령은 A장군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다)”이라는 말의 “出自(~로부터 나오다)”는 介詞(개사)이다. 이런 문언문적인 단어는 백화문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這次攻擊奉的是A將軍的命令。(이번 공격은 A장군에 명령을 따른 것이다)”으로 바꿔 주는 것이 낫다.

from 또한 번역자가 조심히 번역해야 할 개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children from poor families를 “從窮人家來的孩子”라고 번역해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나, 중국식 표현이 아니다. “從……來的(……에서 오다)”라는 말은 “來(오다)”에 대한 동작을 설명해야 하는데, 원문을 보면 어떠한 동작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원문은 아이들의 생활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번역하면 안 된다. 물론 from이 “來”라는 동작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예) “威士忌來自蘇格蘭(스코트랜드에서 온 위스키)”, “杜松子酒<sup>17)</sup>來自英格蘭(잉글랜드에서 온 진)”, “白蘭地來自法國(프랑스에서 온 브랜디)”, “葡萄酒來自葡萄牙(포르투갈에서 온 포도주 등등이 있다)”. 물론 이 말들도 틀린 것은 아니나 중국 사람들이라면 이 말들은 아마도 “威世紀是蘇格蘭出的(스코트랜드산 위스키)”, “杜松子酒是英格蘭出的(잉글랜드산 진)” 혹은 “蘇格蘭的威士忌(스코트랜드의 위스키)”, “英格蘭的杜松子酒(잉글랜드의 진)”라고 말 할 것이다.

그래서 “來自第一艦隊的”이라는 말은 “由第一艦隊派來的”라고 써야 하며 “我收到來自紐約的一封信”이라는 말도 “我收到紐約寄來的信”이라고 수정해야 중국어답다.

through도 다루기 힘든 단어다. 보통 역자들은 이를 “經過(거치다, 지나다)” 혹은 “通過(통과하다)”라고 번역하는데, he entered the hall through the doorway의 through 자체는 “經過”이라는 뜻이지만, he obtained the information through a relative, he achieved great success through his painstaking studies and keen observation 라는 문장의 through는 “通過”라는 뜻이 아닐 듯 싶다. 그리고 이런 필자 생각에 동감하는 독자가 있다면, 이 말을 또 어떻게 수정을 봐야 하는지도 알 것이라 생각한다. 위 두 문장 중 하나는 “他從親戚那裡得到消息(그는 친척에게서 소식을 받

---

<sup>17)</sup>역주: 杜松子酒(gin)은 琴酒 혹은 金酒 라고도 한다.

았다)”이라는 뜻 이고 또 하나는 “憑了辛苦研究,敏銳觀察,他大為成功 (힘든 연구와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는 크게 성공하였다)”이라는 뜻 이다.

이 밖에도 “藉重 (타인의 힘으로……)”, “假手 (타인의 도움을 받아……)”, “靠 (……에 의거하다) 등으로 번역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with도 반드시 “帶來 (가져다주다)”라고만 번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friend came to with a problem라는 말은 문제를 “帶了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다. 영어의 with는 앞 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이다. 물론 중국어 “帶來”도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帶來”로 문장을 연결하면 안 된다. 또한 이럴 필요도 없다. 이 문장은 “有一位朋友找我,他有個問題 (한 친구가 문제가 있다며 나를 찾았다)”라고 번역하면 된다.

## 6. 연결사



but를 주로 “但是 (그러나)” 혹은 “但”으로 번역하지만 “可是 (하지만)”라고 번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he likes to read Shakespeare, but I dont.의 경우도 but를 “可”라 번역해 “我可不喜歡 (~는 ~을 좋아하지만 난 아니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if도 번역하기 정말 쉬운 단어다. 그러나 잘못하면 어색한 중국어 번역문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徐誠斌 추기경의 설명에 의하면 if he is unwilling , why should we force him to do it? 이라는 말에 if는 “假使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떠한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필자도 이에 대해 영·중 사전과 영·영 사전 등 여러 사전을 찾아보았지만 이에 관련 해석은 찾지 못했다. 위 문장의 if는 “既然 (이미~한 바에야)”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or처럼 평범한 단어도 번역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예) bowel or large intestine 중 or는 “或 (혹은)”이 아닌 “就是 (바로)”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는 bowel이 large intestine이라는 뜻이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the Ruler of Darkness or Satan을 “黑暗的主宰,或撒旦”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암흑의 지배자는 바로 사단의 별명이기 때문이다.

Since he is a scholar, let us ask him to give a lecture 에서의 since는 “因爲 (……때문에)”가 아닌 “既然……就…… (이미 이렇게 된 바에야)”라는 뜻이다.

till도 역자를 귀찮게 만드는 단어다. He can wait till we come back 이라는 쉬운 말도 우리는 중국어를 “他可以等,直到我們回來的時候 (그는 우리가 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다)”라고 어색하게 번역하는데 이 말은 “他可以等我回來嘛 (그는 내가 돌아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중문수사」 참조)

when 은 정말로 번역하기 쉬운 단어다. 이는 번역에 힘들이지 않고 무조건 “當……時 (바로 그때)”라고 번역하면 되니깐 말이다. 그래서 When I go to a city도 “當我到一個城市去時 (내가 도시에 갈 때)”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러나 골치 아픈 것은 영국 사람들이 한 문장 안에 이 단어를 대 여섯 번이나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단락에 약 20~30개까지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영어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중국어는 이 단어가 온통 “當…… (的) 時 (候)”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런 번역문을 읽은 독자들은 역자가 미쳤는지를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의 “當…… (的) 時 (候)”라는 말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필자는 《紅樓夢》 제9회를 단숨에 50 줄을 읽어봤어도 “當……時”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Little children cry when frightened라는 말도 “當小孩被驚嚇時便哭 (아이들이 놀라자 울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해도 되나 “小孩子受了驚嚇就哭 (아이들이 놀라서 울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장도 짧아지고 이해하기도 쉽다.

## 7. 기타

Dr.는 물론 박사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사라는 뜻도 있다. 물론 의사도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사학위만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Dr.를 무조건 박사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선박 선원들이 선장을 sir라고 부르는데 이를 “先生 (선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중국에서는 선원들이 선장을 어떻게 부르든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사관이 장교에게도 sir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중국어 표현에 맞게 번역해 줘야 한다. 무조건 sir만 보고 다 “先生”이라 번역하면 안 된다.

중국어와 영어는 형상이나 형태를 묘사하는 것도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 “T”는 중국어 “丁”으로, 영어 “zigzag”는 중국어 “之”로 번역해야 한다. 이 같은 번역은 가급적 비슷한 글자를 찾아 외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V, W, M, N과 같이 비슷한 중국어 글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영어를 그대로 써도 괜찮다.

요즘 영·중 번역을 하면서 생긴 “如所周知 (다 아는 사실)”라는 말은 이미 일반 중국어 작품이나 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번역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은 원래 긴 말을 줄인 것이다. 즉 “如同一般人所知道的 (사람들이 알고 있듯)”라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인데 여기에서 “一般人”과 “所……的”의 “的”를 생략하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필자는 남들이 다 사용한다고 해서 따라 쓴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을 어째서 “大家都知道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것일까?

## 참고문헌

### 참고서적

- 思果著《翻譯新究》臺北 大地出版社 六版二刷 2003
- 劉月華、潘文娛、故韡著《實用現代漢語語法》北京增訂本商務印書館 2001
- 최정화 지음 『최정화 교수의 통역□□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
- Roger T. Bell □□ 박경자·장영준 옮김 『번역과 번역하기』 p.273~p.312, 고려대학교 출판부
- Christine Durieux□□박시현·이향 옮김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 劉宓慶著《當代翻譯理論》臺北 書林出版社 一版三刷 1999
- 劉宓慶著《翻譯與語言哲學》臺北 書林出版社 一版 2000
- 《新華成語詞典》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北京 商務印書館 2002
- 《現代漢語詞典》中國科學研究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增補本 商務印書館 2002
- 《辭海》張嘉文主編 臺北 鐘文出版社 民國91年
- 『現代中韓辭典』高大民族文化研究院中國語大辭典編纂室編 2002革新版
- 『엣센스 국어사전』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편집국 편 2002 전면 개정판
- 『엣센스 영영한사전』민중서림 편집국 편 2002 초판

### 참고논문

- 〈韓中翻譯과 글쓰기〉 朴英綠, 1998
- 〈中韓翻譯에서 나타나는 두 言語 사이의 各異한 特點〉 최덕은, 《국제문화연구》 12권, 1995
- 〈정보 전달 구조 측면에서본 한·중 번역 단위에 대한 연구〉 김영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참고사이트

- 龍騰世紀書庫 <http://www.millionbook.net/>
- 嶺南大學圖書館 <http://www.library.ln.edu.hk/>